no.09
2021 CTMS Brief

글 강지남_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본 자료 발표자 아니타 바티아_유엔여성 부총재
엘리사 브라운스타인_미 콜로라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오치아이 에미코_일본 교토대 사회학과 교수
카비타 람다스_오픈소사이어티재단 여성권익프로그램 디렉터
이토 펭_캐나다 토론토대 사회학 및 공공정책학과 교수
신성식_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자인 케이트 스몰, 최정미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리뷰 3

보이지 않는 돌봄에서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돌봄으로

돌봄경제와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본 센터는 6월 2~4일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주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위기 실태를 고찰하며, 돌봄경제 육성 및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노벨경제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낸시 폴브레 미 매사추세츠대 명예교수,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와 국내외 돌봄 현장의 주역들이 함께 나눈 주요 내용을 5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돌봄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 실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임을 전 세계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카비타 람다스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여성권인프로그램 디렉터의 말대로[1] 전염병 대유행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는 제프 베조스 같은 거물이 아닌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청소부,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부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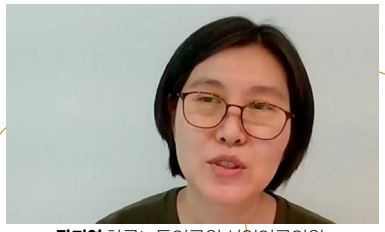
그런데 '누가' 돌봄을 담당하느냐란 질문 앞에서 돌봄의 현실은 성별 격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전세계 여성은 가정 내 무급돌봄 및 가사노동의 75%를 도맡아왔습니다[2]. 이런 현실은 코로나19 기간 더 악화됐습니다. 주로 여성이 일자리를 잃는 '쉬세션(shecession)'[3] 현상 하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돌봄을 전담하게 된 여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본 컨퍼런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여성의 돌봄 부담 증대로 삶의 질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를 개별 국가 사례로 가늠하며 양성평등한 돌봄경제 구축의 중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성 자살율만 유독 증가

1 카비타 람다스, 6월 3월(Day2) 세션1 '돌봄경제,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토론

2 아니타 바티아 유엔여성 부총재, 6월 3월(Day2) 세션1 '돌봄경제,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기조발표

3 여성(she)과 경기침체(recession)를 결합한 신조어. 코로나19 기간 경기 악화로 발생한 실업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된 현상을 의미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카비타 람다스 세계은행 글로벌 젠더 디렉터

아니타 바티아 유엔여성 부총재

엘리사 브라운스타인 미 콜로라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오치아이 에미코 일본 교토대 사회학과 교수

이토 펭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정신건강이 나빠졌다", "유급노동을 포기했다"…

코로나19 기간 일본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무거운 돌봄 부담을 떠안았습니다[4].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습니다. 남성 일자리는 39만 개 감소한 반면 여성 일자리는 이보다 2배 이상인 70만 개가 감소했습니다[5]. 이후 집에서 돌봄을 전담하게 된 여성들은 큰 고충을 겪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1.5배 증가했고[6], 여성의 자살율은 83%나 늘었습니다[7]. 특히 가족이 있는 여성이 스스로 삶을 등지는 선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공적 돌봄도 주로 여성이 담당하며 불안정한 고용 지위 및 저임금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공의료 서비스의 40%가 비정규직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들의 75%가 여성입니다. 올 3월 열린 '가난한 공공근로 여성들' 긴급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월급 10만 엔(약 105만 원)으로는 부업을 하지 않고 살기 힘들다.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고, 인력 보충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오치아이 에미코 일본 교토대 사회학과 교수는 "돌봄의 가치와 돌봄노동자의 노력이 평가절하되는 현실에서 모든 문제가 여성에게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봄노동의 여성 편중은 영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8].여성은 남성보다 무급 돌봄에 2배 가까운 시간을, 가사 노동에는 64%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9]. 또 무급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의 58%(약 300만 명)은 유급노동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무급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0]에서 4분의 3 이상이 "지쳤다", 3분의 2는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이들의 11%는 "돌봄을 위해 유급노동 시간을 줄였다", 9%는 "유급노동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4 오치아이 에미코, 6월 3월(Day2) 세션2 '젠더평등과 코로나19 이후의 돌봄사회' 기조발표

5 2020년 3월

6 2020년 4월에서 2021년 2월 사이

7 2020년 10월, 5900명 대상 설문조사

8 다이앤 엘슨, 6월 3일(Day2) 세션5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 영국의 돌봄경제 구축을 향한 노력과 전망' 기조 발표

9 2020년 9~10월

10 2020년 10월

양성평등한 돌봄경제가 경제성장 가져와

건설경제보다 돌봄경제가 일자리 창출 효과 커

여성이 가족 내 무급돌봄의 대부분을 도맡고, 유급의 돌봄노동마저도 임금이 낮고 고용 지위는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컨퍼런스에서 학자 및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돌봄의 가치를 외면하는 데 근원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봄은 경제의 중요한 두 축인 생산과 소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게 돌봄노동이 할당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식당, 숙박시설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대거 해고돼 무급돌봄을 도맡게 되고, 가정 내 돌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여성이 많았던 현실에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계하려면 돌봄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경제의 구축은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사 브라운스타인 미 콜로라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돌봄을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11]. 사회적 재생산으로서 돌봄은 우리 경제에 없어선 안 될 노동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며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화입니다. 즉, 돌봄노동은 경제성장이 필수적인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듭니다. 브라운스타인 교수는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실현은 생산과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에 두고 돌봄경제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진행돼야 합니다.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양성평등을 촉진합니다[12]. 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돌봄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같을 경우 건설 영역보다 1.6배 많은 일자리가 돌봄 영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중 여성의 일자리는 3.9배, 남성의 일자리는 0.8배 더 많아집니다. 또 돌봄에 대한 투자는 가계 지출을 활성화하고 가족 내 무급돌봄을 감소시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돌봄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GDP 대비 투자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나머지 경제 부문의 생산성이 중장기적으로 3.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중요한 까닭은 전세계적인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유급의 돌봄노동자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인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2030년까지 이 숫자가 2억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13]. 영국만 하더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14]. 이번 팬데믹 이전 사회복지 종사자가 120만 명이었는데,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12만2000명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영국에선 2035년까지 65만~95만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돌봄사회화 정책은 세 가지, 육아휴직급여와 가족양육수당, 그리고 보육료 지원은 모두 양성평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유급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15]. 하지만 한국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간병 인력의 40%가 조선족 여성들로 채워져, 이들 없이는 노인 돌봄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15].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조선족 여성 간병인들은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에 더해 병실 한 구석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사실상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11] 엘리사 브라운스타인, 'Envisioning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Economic Growth', 6월 3일(Day2) 세션5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 영국의 돌봄경제 구축을 향한 노력과 전망' 토론

[12] 다이앤 엘슨, 위

[13] 아니타 바티아, 위

[14] 다이앤 엘슨, 위

[15] 장지연, '돌봄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are: Gender and Social Class Implication)', 6월 2일(Day1) 세션5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 영국의 돌봄경제 구축을 향한 노력과 전망' 토론

[16] 신성식, '돌봄경제의 전제 조건', 6월 2일(Day1) 세션5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 영국의 돌봄경제 구축을 향한 노력과 전망' 토론

두 개의 산봉우리에 동시에 오르는 법

한편 이토 펭 캐나다 토론토대 사회학 및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이주 돌봄노동자(migrant care worker)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1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돌봄노동을 수행하고자 제1세계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에 저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국에서 돌봄노동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 저개발 국가의 여성을 선진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로 이러한 돌봄의 '아웃 소싱'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이주 돌봄노동자들은 이동 제한, 업무량 증가, 임금 감소, 실업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이들의 모국과 가족은 송금액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펭 교수는 "국가마다 저마다의 돌봄 역량을 구축해 글로벌 파이프라인에 덜 의존하도록 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 기준을 마련해 파견국 및 수용국이 다자간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선족 돌봄노동자를 포용하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17] 이토 펭, 'Connecting Care Economy,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future', 6월 2일(Day1) 세션5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 영국의 돌봄경제 구축을 향한 노력과 전망' 토론

[18] 장지연, 위

2021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리뷰 목차

1 '왜 돌봄경제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계적 석학들의 제언
2 돌봄경제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
3 돌봄경제와 젠더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4 한국 사회의 돌봄위기 현실
5 돌봄 현장의 목소리

이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도 외면 말아야

양성평등한 돌봄경제 구축에 나서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처럼 돌봄의 가치를 외면한 채 여성의 돌봄노동을 공짜 혹은 저렴하게 활용하고자 한다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돌봄노동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한 돌봄경제 구축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육아휴직급여와 보육료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이는 한국의 돌봄사회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이상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됐습니다[18].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수당 정책은 성별 고정관념을 약화시키며 부모가 무급돌봄을 분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예산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시행하긴 어려운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들 국가에서는 비정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른 정책적 시도가 필요합니다[19]. 단지 국가가 주도하는 데서 그쳐선 안 되고, 기업 및 시민사회의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20].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 역시 놓쳐선 안 될 이슈입니다[2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경제 구축과 양성평등 증진은 상호 연관된 과제입니다. 두 개의 높은 산봉우리에 동시에 오르는 노하우를 아니타 바티아 유엔여성 부총재의 말을 빌려[22] 4단계로 제안합니다. 첫째, 돌봄 부담의 존재를 인식하자. 둘째, 돌봄 부담의 크기를 줄여나가자. 셋째, 돌봄 부담을 남성과 여성 간에 재분배하자. 넷째, 유급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자. 더이상 돌봄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선 안 됩니다.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19] 아니타 바티아, 위

[20] 이토 펭, 위

[21] 아니타 바티아, 위

[22] 아니타 바티아, 위

"본 브리프는 2021년 6월2~4일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중 첫쨋날 세션5('영국의 돌봄경제 구축을 향한 노력과 전망') 및 둘쨋날 세션1('돌봄경제,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과 세션2('젠더평등과 코로나19 이후의 돌봄사회')의 발표 내용을 본 자료로 작성됐습니다. 본 브리프의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www.ctms.or.kr
ctms.snu@gmail.com
@ctmssnu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국제대학원 140동 307호

사전승인 없이 무단배포 또는 자료 수정 및 편집은 불가하며, 본문 내용 등 활용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2021)' 등으로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